

## 無蒸煮糖化(Solid Phase Fermentation)

本文은 日本「발효와 공업」지 Vol. 39, No. 9, p. 10

~17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임 一편집자—

上田誠之助

(九州大学農学部, Ueda Seinosuke)

### I. 緒 言

第2次世界大戦後、石炭에 이어 石油가 에너지의 大半을 차지해 이를 化石에너지에 依存하는 것이 当然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1973年の 第1次 오일쇼크, 또다시 最近의 第2次 오일쇼크의 経験을 体験하고 비로서 에너지源으로서 石油에 依存해도 좋은가 하는 疑問이 생기기 시작했다. 50年後에는 潛渴할 것인 石油, 戰時物資로서 언제 어느때 그 供給이 끊어질지 모를 石油, 年年 그 価格이 高騰해 1980年代末期에는 1 배럴당 100弗로 現在의 3倍의 価格까지도 될 것이라는 石油, 이렇게 将来性에 있어서 不安全要素가 많은 石油에너지에서 無尽藏인 太陽에너지로 사람들은 눈을 둘리게 된 것이다.

太陽에너지에 依하여 限定없이 生産되는 바이오매스를 利用한 에너지 生産에 사람들의 注意이 集中하고 있다. 그 中에도 바이오매스에의 에타놀 生産이 特히 손쉬운 課題로서 脚光을 받고 있다. 農產資源이 豊富한 나라는 그 나라 特有의 農產物에서의 에타놀 生産에 依해 石油에너지의 代替를 시도하고 있다. 브라질에 있어서는 主로甘蔗榨汁 및 糖蜜에서 年間 380萬kl에 達하는 에타놀 生産(將來는 카사바에서의 에타놀 生産도 計劃하고 있다), 美國에 있어서의 옥수수로부터의 에타놀 生産, 뉴질랜드에 있어서의 飼料用甜菜(fodder beet)에서의 에타놀 生產等이 그 例이다. 東南아시아에서도 카사바에서의 에타놀 生產이 計劃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에너지 source의 에타놀 生產인 以

上如何히 最少의 生産에너지로 多量의 에타놀을 生産하느냐가 問題로 된다. 그러므로 炭素源을 濕粉質原料에서 求한다면 糖質原料에 比하여 必然的으로 多量의 生產에너지가 必要해 진다. 왜냐하면 糖質原料의 경우에는 孝母는 糖을 直接 에타놀로 転換할 수 있으나 濕粉의 경우에는 한번 加熱해서 糊化濕粉으로 만든 후 아미라제로 濕粉의 液化, 糖化를 시켜 酸酵性糖을 구루코스나 말토스로 바꿔 가지고 비로소 酵母에 依하여 에타놀로 転換시키기 때문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濕粉質原料의 境遇 그의 蒸煮, 液化, 糖化에 必要한 에너지 量은 에타놀 生產에 必要한 에너지 量의 約30%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蒸煮에너지의 節約하고자 濕粉質原料의 無蒸煮에타놀 酸酵인 solid phase fermentation을 試圖하는 것이다.

### II. Solid Phase Fermentation

固体培地, 例를 들면 쌀이나 小麥에 糸狀菌을 繁殖시켜 만든 麴은 日本, 中国, 韓国, 泰国等 東洋의 獨特한 手法과 產物로, C. W. Hestertine은 이 固体培養法을 solid state fermentation이라 命名하고 많은 例를 紹介함과 동시에 그自身도 이 手法을 써서 아후라트기신等의 生產을 하고 있다. 톱밥等 木質培地로 버섯栽培, 蒸煮大豆에 納豆菌을 繁殖시키는 納豆製造도 solid state fermentation의 카테고리에 들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irby and Mardon은 solid phase

fermentation인 酸酵는 micro attack, usually by fungi, on solid moist particles라고 定義하고 있어 solid state fermentation과 同一한 定義로 보이나 Kirby等의 研究對象에서 생각하면 solid phase fermentation은 오히려 半流動的 固體醪의 酸酵로 清酒醪, 간장, 된장등의 酸酵가 이 中에 들어가지 않을 런지.

從來, 甘蔗나 甜菜에서의 에타놀 生産의 境遇 榨汁을 採取해서 그것을 에타놀 酸酵시키는 liquid phase fermentation이 있으나 榨汁操作에 莫大한 에너지를 消費하므로 Kirby等은 甜菜에서의 에타놀 酸酵에 있어 省에너지 를 指向하여 榨汁操作을 省略하고 甜菜칩의 에타놀 酸酵 即 solid phase fermentation을 하고 있다.

이 澱粉質原料에서의 無蒸煮에타놀 酸酵도 省에너지를 指向한 solid phase fermentation 이므로 이 兩者에 對하여 좀더 詳細하게 紹介해 보자.

### III. 糖質原料를 使用한 Solid Phase Fermentation.

甜菜나 甘蔗에서의 에타놀 生産을 할 때前述한 바와 같이 從來에는 이러한 原料를 磨碎하여 壓榨, 다시 残渣에 물을 주어 糖分의 抽出, 壓榨으로 적어도 3回以上的 壓榨, 抽出이 必要하여 이에드는 에너지가 크며 壓榨, 抽出裝置가 高価였다. 1979年 과테말라의 Polz等은 甘蔗의 solid phase fermentation을 500ml 플러스크 実驗의 스케일로 하였다.

甘蔗칩에 温水를 加하고 酵母로 酸酵시킬 뿐이나 甘蔗組織에서의 蔗糖의 抽出이 液中の 糖類가 에타놀로 바뀌는 것으로 蔗糖의 濃度勾配가 커지며 促進된다. 酸酵終了液에 다시 新鮮한 甘蔗칩을 添加, 에타놀 酸酵를 시켜 에타놀의 濃度를 4.5~5.5W/V%로 높인다. 甘蔗칩中의 蔗糖의 99%가 에타놀로 転換된다. 其他의 長点으로 酵母의 営養源을 아무것도 添加

하지 않아도 괜찮은 点이다. 甘蔗榨汁酸酵에서 는 磷酸암모니아, 磷酸가리등의 添加가 必要한 것이나 이 solid phase fermentation process를 그들은 EXFERM process로 부르고 있다. 이 方法이라면 初期投資가 적고 에타놀 収率이 높으며 結果的으로 生產コスト는 5¢/l가 싸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甜菜를 使用하는 solid phase fermentation에 對하여는 1980年의 오스트리아의 Kirby and Mardon의 研究가 있다. 그들은 100ml~2l의 스케일로 実驗을 하고 있다. 粉碎한 甜菜에서의 蔗糖抽出은 어려우며 热水抽出을 回分的으로 하면 数回의 回分抽出로는 蔗糖의 抽出은 充分치 못하였다. Bauer refiner로 甜菜를 直徑 3mm 쯔의 粒子로 細斷하여, 팔푸로 하여 途中 한번 加水하여 두번 壓榨로 라에 걸면 糖分回收率 65%로 最高回收率을 얻었다. 거기서 3mm 直徑의 거칠은 팔푸와 1mm 直徑의 고운 팔푸를 써서 solid phase fermentation의 比較를 해 보았다. 粉碎程度의 差, 加水의 影響 80°C 予熱의 效果 各種濃度의 페쿠치나제, 세루라제의 添加效果가 調査되었는데 물도 酵素도 添加하지 않은 無處理区가 最高 에타놀 収率을 올려 粉碎程度의 差도 酸酵收率에는 거의 影響을 주지 않았다. 시트의 酵母도 乾燥빵 酵母라도 新鮮 壓榨빵 酵母라도 좋았다. 酸酵프로세스의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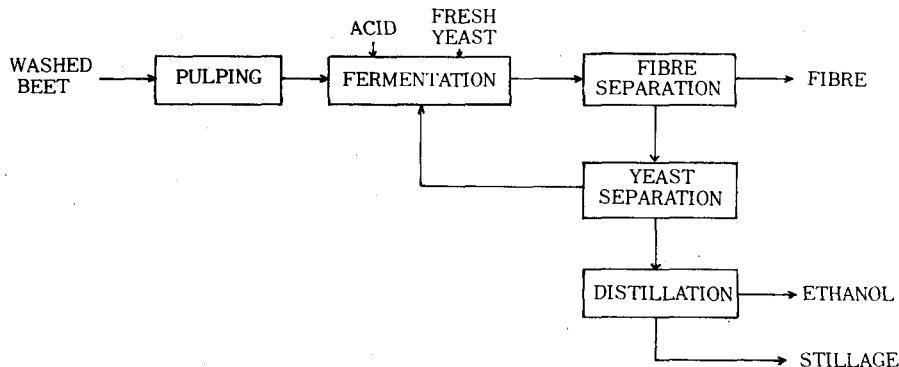
〈表1〉 酵母濃度의 関數로서의 酸酵時間

基 質	酵母濃度 (g/kg)	酸酵時間(h)	
		最終收率* 95%까지	最終收率 99%까지
榨 汁	2	17	19
거칠게 磨碎한 甜菜	2	13½	15
"	3	12	13½
"	6	9½	11
"	9	7½	9

\*最終收率은 理論收率의 約 90%

例를 듣다면 다음과 같다. 거칠게 이긴 甜菜 팔푸는 stiff consistency를 지녀 余剩水分도 안나오는 狀態였다. 10W/W%의 酵母懸濁液을 팔푸에 混合하여 30°C로 酸酵시켰다. 팔푸

Research Organization의 頭文字를 따서 CSTRO process로 命名했다. 그들은 또한 廢纖維成分 蒸留廢液에서의 メタン酸酵를 試圖하고 있다.



〈図1〉 甜菜를 使用한 solid phase fermentation의 흐로시트

는 酸酵플라스크中에 堆積된 狀態로攪拌은 全然안 했다. 酸酵時間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酵母濃度의 関數이었다.

또한 이 表에서도 밝혀진 바와같이 팔푸의 酸酵時間은 榨汁의 경우보다 현저히 短縮된 것을 알 수 있다. 에타놀 収率은 85~90%로 酸酵液에는 9.5%의 에타놀이 含有되어 高級알콜을 찾아 볼 수 없었다. 甜菜膠의 殺菌, 嘗養分의 添加도 必要없으며 단지 pH가 酵母添加前에 pH 4.5로 調節되었다.

新鮮한 甜菜팔푸에서 榨汁을 짜내면 불과 65%의 回收率로 蔗糖이 얻어 지는데 지나지 않는 二段式 spring loaded roll(고무코팅)을 써서 酸酵 팔푸를 壓榨하면 途中에 1回 12%의 물을 加하였을 뿐으로 生成에타놀의 95%가 回收되었다. 酵母는 에타놀 含有压榨汁에서 遠心分離에 依해 容易하게 回收되어 新鮮酵母와 같이 다음 回分酸酵에 使用된다. 甜菜팔푸의 solid phase fermentation의 흐로시트를 나타내면 図1과 같다. 이 方法은 그들의 研究所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 IV. 澱分質原料를 使用한 無蒸煮 Solid Phase Fermentation

黑麴아미라제가 黃麴아미라제나 麥芽 아미라제에 比하여 生澱粉을 잘 分解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으며 図2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 生澱粉分解活性의 至適 pH가 3.5로 酸性領域에 있으므로 黑麴아미라제를 使用해서 生澱粉의 無蒸煮에타놀 酸酵를 試驗했다.

##### 1. 黑麴아미라제

黑麴아미라제가 왜 生澱粉을 強力히 分解할 수 있는가의 解明을 해보려했다. 그 結果 生澱粉分解의 主役은 生澱粉吸着性的 구루코아미라제 I로서 이 아미라제는 아미로페쿠친 만으로된 “찹쌀澱粉”이나 “찰옥수수澱粉”을 거의 完全히 구루코스로 分解할 수 있기 때문에 구루코아미라제 I은 아미로페쿠친의  $\alpha$ -1, 4-구루코시드 結合外  $\alpha$ -1, 6-구루코시도 結合도 分解할 수 있는 아미라제이다. 生澱粉非吸着性的 구루코아미라제 II는 아미로페쿠친의  $\alpha$ -1, 4-구루코시드 結合切斷能에 比해  $\alpha$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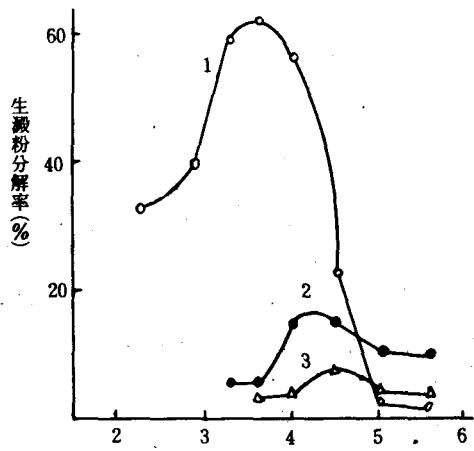


図2 各種 アミラ제에 의한 生澱粉(甘藷) 分解

曲線 1 ; 黑麹 アミラ제, 曲線 2 ; 黃麹アミラ제,

曲線 3 ; 麦芽 アミラ제 (40時間)

(生澱粉分解試験法)

生澱粉1g, 酵素液 20ml, 1/10M 塩酸-亜鉛液 少量, 細胞液 20ml, 水 120ml, テリオール 小量, 30°C  
에서 反応시킨다. 1日1回攪拌

\*各種 酵素源의 糊化澱粉糖化力を 대략 一定케 하여 使用。

구루코시드 結合切断能이 顯著히 弱하다. 구루코아미라제 I 은 구루코아미라제 II 와 달라 生澱粉을 強하게 分解하여 또한 興味 있는 것은 図3에서 보는 바와같이 구루코아미라제 I에  $\alpha$ -아미라제나 澱粉가지 자르기(枝切)酵素(이소 아미라제)를 加하면 구루코아미라제 I의 生澱粉分解力의 数倍로 增強되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구루코아미라제 I에 依한 糊化澱粉의 分解에 있어서는 볼 수 없는 現象이었다.

또한 거미줄곰팡이 黃麹菌의 아미라제系에도 구루코 아미라제 I 이 存在하는 것을 밝혔으나 黃麹菌의 아미라제系는 거의가  $\alpha$ -아미라제로 구루코 아미라제 I 은 黑麹菌의 경우 約 10分之 1의 微量으로 이 事實에서 黑麹아미라제系가 黃麹아미라제系보다 生澱粉을 強하게 分解할 수 있다는 것을 理解할 것이다. 麦芽아미라제系가 生澱粉 分解力이 弱한 것은  $\beta$ -아미라제가 生澱粉을 거의 分解할 수 없고  $\alp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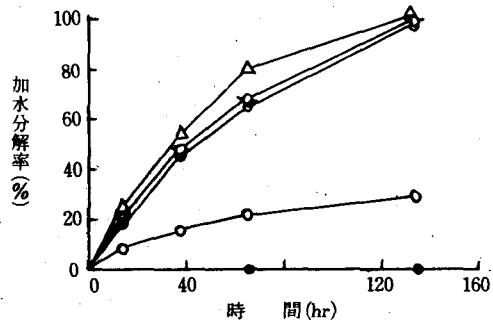


図3) 구루코 アミラ제에 의한 칠옥수수 生澱粉 分解에 대한 이소아미라제 또는 아미라제의 影響

△ : 구루코 아미라제 I (0.44单位),  $\alpha$ -아미라제 (20单位), 이소아미라제 (50单位)

-○- : 구루코 아미라제 I (0.44units),  $\alpha$ -아미라제 (20units)

◎ : 구루코 아미라제 I (0.44units), 이소아미라제 (50units)

○ : 구루코 아미라제 I (0.44units), 単独

● :  $\alpha$ -아미라제 (20units) 또는 이소아미라제 (50units) 単独

아미라제에 若干 生澱粉 分解力이 있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미줄곰팡이의 아미라제系에는 黑麹菌에相當하는 구루코 아미라제 I 을 거의 黑麹菌과 同量을 含有하고 있어 生澱粉를 容易하게 分解할 수 있다 단지 그 至適pH가 約 4.5로 黑麹아미라제의 경우의 pH 3.5보다 약간 中性域에 있으므로 澱粉質原料의 無蒸煮에 타눌 酸酵에 있어서는 雜菌汚染防止란 見地에서 黑麹아미라제의 使用이 바람직하다.

## 2. 白米의 無蒸煮에 타눌 酸酵

### a. 麵麹의 使用

最近飼料米生產의 可能性이 벌써부터 話題로 돼 있으나 이것을 原料로 한 에너지 生產即 에타눌 生產이 생각되고 있다. 筆者等은 벌

써 約 16年前에 黑麴아마라제를 써서 白米의 無蒸煮에타놀 酶酵를 報告하고 있어 紹介한다. 最近 態谷등에 의하여도 數種의 酵素剤를併用한 白米의 無蒸煮에타놀 酶酵가 發表되고 있다.

黑麴아마라제에 의해 穀類의 生澱粉(例를 들면 옥수수)은 地下莖의 生澱粉(例를 들면 馬鈴薯, 甘藷)보다 分解되기 쉽다. 其中에도 粮의 生澱粉은 分解되기 쉽다. 그려므로 筆者들은 우선 黑麴아마라제를 使用한 白米의 無蒸煮에타놀 酶酵를 試圖했다. 白米에는 約 1割 摘滅한 것을 使用했다. 白米의 볼밀에서의 粉碎時間은 0.5, 1.0, 2.0, 5.0, 10.0 時間으로 바꿨다. 그 境遇 粒度分布를 <表2>에 나타냈다. 酶酵의 組成은 黑麴菌의 麴麴의 10% 抽出液 70ml, 水道水 10ml, 白米粉 30g, 酒母(*Saccharomyces sake*의 泥狀酵母 約 0.8g을 含有) 3ml, -N/5 HCl 3ml(醪의 pH를 3.6으로 調節). 30°C에서 白米粉의 糖化酶酵를 시켰다. 酶酵日数 9日에 에타놀 13.6V/% 残全糖 0.9g, 酶酵步合 83.0%의 成績을 얻었다. 白米粉의 粉碎時間 比較에서는 볼밀에서의 0.5時間의 粉碎로 充分하였다. 態谷等의 報告에는 白米의 粉碎는 必要치 않다는 것이다.

<表2> 粉碎時間과 白米粒子의 크기

粉碎時間	重 量 %				
	0.5	1.0	2.0	5.0	10.0
10μ 以下	47	67	74	65	60
10~20μ	21	19	15	34	37
20~50μ	19	14	11	1	3*
50~100 μ	4	0	0	0	0
100μ 以上	9*	0	0	0	0

\* 9% 中 約80%는 1mm徑의 篩上에 남는 거의 無傷의 米粒으로 이것은 酶酵原料로는 하지 않았다.

酶酵溫度의 影響을 살펴보면 30°C와 24°C와는 酶酵日数, 生成에타놀 量은 거의 같으나 室温(6~14°C)의 糖化, 酶酵에서는 酶酵日数도 30

日로 約 3倍나 길게 걸려 残全糖도 1.18g로 많고 生米澱粉의 糖化가 不完全하다는 것이 判明됐다. 香味란 点에서 麴麴에서 오는 苦味 臭氣가 強해 問題가 되지 않았으나 에너지源으로서의 에타놀 生產에는 白米의 無蒸煮에타놀 酶酵는 適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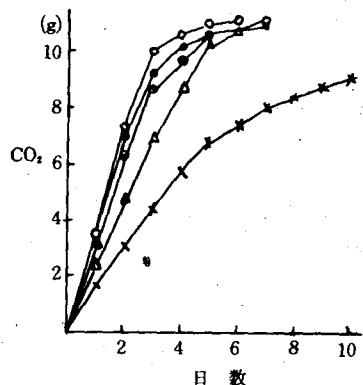
### b. 液体麴의 使用

에타놀 酶酵液의 香味改良의 目的으로 麴麴 대신 液体麴을 使用했다. 液体麴用培地로 馬鈴薯澱粉 3%, 酢酸암모늄 1.1%, K<sub>2</sub>HPO<sub>4</sub> 0.3%, MgSO<sub>4</sub>·7H<sub>2</sub>O 0.1%, MnSO<sub>4</sub>·4H<sub>2</sub>O 0.07%, NaCl 0.05%, 구루코스 0.1%의 組成인 培地를 使用했다. 이 培地를 殺菌後 *Aspergillus awamori* 河内株의 麴寒天斜面培地에서 1日 金耳接種하고 30°C로 4日間 振盪培養한다. 振盪培養液은 10% 塩酸으로 pH 3.6으로 調節하여 酵素液으로서 使用했다. 菌体含有 酵素液을 그대로 또는 菌体除去酵素液 또는 菌体含有酵素液을 물로 2倍로 稀釀한 것 각각 80ml, 白米粉 30g, 酒母(10°보링 麴汁 5ml로 30°C, 24時間 培養으로 얻은 *Saccharomyces sake*의 泥狀酵母)를 加한 醣의 pH를 3.6으로 調節하고 30°C에서 糖化酶酵를 시켰다.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液体麴全量仕入에서는 불과 5日의 酶酵日数로 14.6V/%의 에타놀이 生成됐다. 液体麴半量仕入에서도 酶酵日数 8日로, 10% 麴麴抽出液의 경우 酶酵日数 7~10日인데 比

<表3> 液体麴仕込의 酶酵液의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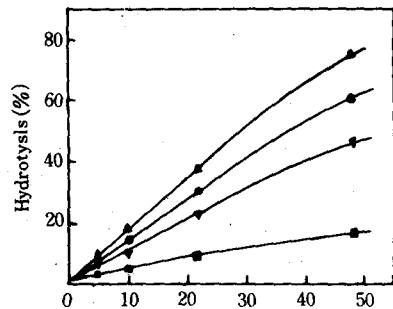
区分	液体麴全量	液体麴液	液体麴半量
酶酵日数	5	7	8
에타놀(V%)	14.6	14.6	14.4
残全糖(%)	1.00	1.09	1.47
残直糖(%)	痕跡	痕跡	痕跡
酸度	6.0	5.8	6.0
pH	3.8	3.8	3.8
酶酵步合(%)	90.4	90.4	89.1

하여 液體麴의 아미라제活性이 強力한 것을 알았다. 어쨌든 黑麴菌의 液體麴을 使用함으로서 白米粉은 無蒸煮에 타놀 酸酵로 容易하게 에타놀로 転換되는 것을 알았다. 또다시 液體麴의 組成을 檢討하여 醋酸암모늄대신 脱脂大豆를 使用 馬鈴薯澱粉과 脱脂大豆의 濃度를 여러가지로 바꿔 比較検討했다. 図4에서 보는 바와같이 培地 100mℓ中 液粉 3g과 脱脂大豆 1g의 경우 以外에는 5~6日에 酸酵가 終了돼 14.5V/% 前後의 에타놀을 얻었다. 馬鈴薯澱粉 1g과 脱脂大豆 1g으로 調製된 液體麴을 使用하여 白米粉을 20℃에서 糖化, 酸酵시키면 酸酵日数 18일에 15V/%의 에타놀이 生成되어 香味에 있어 若干 나은 편이었다. 白米粉대신 白糖을 澱粉源으로 使用했을 경우도 黑麴菌의 液體麴使用으로 無蒸煮로 容易하게 10~12V/% 에타놀이 酸酵日数 8~10일로 生成되었다. 以上의 實驗에서 飼料米가 될 경우 이제부터는 에타놀 生成은 無蒸煮米로서의 糖化酸酵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図4〉 脱脂大豆의 檢討

- 澱粉3g : 脱脂大豆3g
- △—△ 澱粉1g : 脱脂大豆1g
- " 3g : " 2g
- ×—× " 3g : " 1g
- ◎—◎ " 2g : " 2g



〈図5〉 各種生澱粉의 黑麴 아미라제에 의한 分解

The mixture of 0.5g of raw starch, 5mℓ of 0.5M citrate-HCl buffer (pH3.5), 15mℓ of deionized water and 5mℓ of 1% black-koji (ca. 5.6units/mℓ) was incubated at 40℃. One milliliter aliquots were analyzed for produced glucose by the micro-Bertrand method. Symbols; ▲, corn starch; ●, cassava starch; ▼, sweet potato starch; and ■, potato starch.

### 3. 카사바의 無蒸煮에타놀 酸酵

브라질이나 東南아시아에 있어 카사바에서의 에타놀 生產을 바라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에너지源으로서의 에타놀 生產이므로 省에너지 方式인 黑麴아미라제를 쓰는 카사바의 無蒸煮에타놀 酸酵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고구마의 生澱粉은 黑麴아미라제로 分解가 잘 않되므로 穀類澱粉의 代表로서의 옥수수 澱粉, 고구마 澱粉으로서 馬鈴薯, 甘藷, 카사바를 써서 黑麴아미라제에 의한 糖化의 難易를 比較했다. 図5에서 보는 바와같이 카사바 生澱粉은 甘藷의 生澱粉보다 分解되기 쉬우며 옥수수의 生澱粉보다 약간 分解되기 어려운 程度였다.

#### a. 4種의 카사바의 無蒸煮에타놀 酸酵

카사바는 貯藏性이 나빠 캐낸 다음 室温에서 2~3日 지나면 곰팡이가 생겨 腐敗한다. (一部自己消化인지?) 그리하여 筆者は 現地 即 브라질 칸비나스 大学에서 共同實驗을 했다. 多幸히도 칸비나스大学近處 国立農事試驗場이

〈表 4〉 各種 카사바의 아미라제製剤를 使用한 無蒸煮, 알코올酶

Variety of cassava	Total reducing sugars (g)		CO <sub>2</sub> formed (g)	ETOH formed (g)	Theoretical ETOH production (g)	ETOH yield (g)
	before fermentation	after fermentation				
SRT-59	34.20	1.71	17.30	16.54	16.60	99.6
SRT-AIPIM	35.64	1.33	17.40	15.01	17.42	86.2
BRAVO	42.93	1.33	18.45	17.50	21.26	82.3
IAC-12.829	40.86	1.52	19.95	19.57	20.10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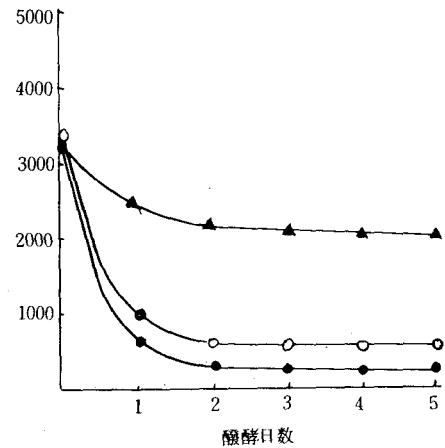
※ The amounts of commercial amyloglucosidase were 1g (equivalent to 1170 units) in a 500mℓ Erlenmeyer flask.

있어 改良品種 4種의 카사바에 對하여 無蒸煮에 타놀 酶을 시켜 그 結果를 比較検討했다.

카사바를 水洗하여 細片으로 切断하고 거기다 重量으로 半分量의 물을 加하여 와링부렌다로 카사바를 磨碎하여 磨碎物 180g(카사바 120g, 물 60mℓ相当) 10v/v% 硫酸 3.5~4.0mℓ(醪의 pH를 3.5로 調節하기 위하여), 15% 新鮮压搾呻酵母菌体懸濁液 4mℓ, 10% 구루코아미라제 製剤 4mℓ를 500mℓ 三角플라스크에 넣고 酶酵栓를 막고 30℃에서 酶酵시켰다. 酶酵는 5日에 終了하고 그 酶酵成積을 〈表 4〉에 나타냈다. 이 表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良好한 酶酵成積을 나타냈다. 시안 含量은 SRT-AIPIM BRAVO 21.7ppm, IAC-12.82g가 20.9ppm으로 시안 含量이 높은 것이 타놀 収率이 좋은것 같으나 여기에 對하여는 再検討가 必要하다.

#### b. 麴類과 구루코아미라제 製剤의 比較

이어서 黑麹菌 *Aspergillus awamori* HRL 3112와 *Asp. niger* (Kyushu Univ.)를 使用하여 麴類을 만들어 카사바의 糖化에 使用했다. 120g의 카사바의 搽碎物에 麴類 10g(*Asp. awamori*의 경우 1.040u, *Asp. niger*의 경우 576u)를 使用했다. 구루코 아미라제 製剤의 경우 3,510u가 加해졌다.



〈図 6〉 酒粘度의 時間経過와의 関係

- ▲- 구루코아미라제製剤
- *Asp. awamori*麹
- *Asp. niger*麹

麹類의 경우에는 仕込後 하루밤에 半泥状의 醬가 液状으로 變化하고 添加 아미라제 量도 麹類의 경우 구루코 아미라제 製剤의 경우에 比해 約  $\frac{1}{6} \sim \frac{1}{3}$ 로 적은대도 불구하고 酶酵日數는 5日로 구루코 아미라제 製剤의 경우와 同一하였다. 이와 같이 근소한 아미라제 量으로 타놀 酶酵가円滑히 進行한 것은 麴類中에 存在하여 구루코 아미라제 製剤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감자 組織崩壊活性에 의한

것이 컸다고 생각된다. 酶中의 酶의 粘度變化를 図 6에 나타냈다. 여기서 麦麴과 구루코아미라제 製剤인 헤미세루라제 活性과 세루라제 活性을 比較하였든바 麦麴의 헤미세라루제活性이 구루고 아미라제 製剤인 그것보다 顯著하게 強한 것이 判明됐다.

〈表5〉 키시란 및 셀룰로즈 両分解酵素의 全活性

酵素의種類	기시란 分解活性 (单位)	셀룰로즈 分解活性 (单位)
<i>Aspergillus niger</i> 麴 200g	176,000	14,000
<i>Aspergillus awamori</i> 麴 200g	170,000	14,000
구루코아미라제製剤 10g	28,000	28,000

그래서 다음에 구루코아미라제 製剤로에 市販의 세루라제剤, 페쿠치나제剤의 添加效果를 살폈다. 세루라제剤, 페쿠치나제剤의 添加로 酶酵日數가 적어도 2日은 短縮할 수 있었다. 또 에타놀 収率도 上昇하는 것이 表 6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세루라제 標品에는 페쿠치나제 헤미세루라제 両活性이 다같이 높았다. 以上과 같이 生감자와 黑麴을 쓴 無蒸煮 에타놀 酶酵에 있어서는 구루코아미라제,  $\alpha$ -아미라제 외에 生감자의 組織을 崩壊하는活性이 必要한 것이 判明됐다. 그러나 生감자 組織崩壊活性이 헤미세루라제에 起因하는 것인지, 페쿠치나제에 의한 것인지, 両者の組合에 起因하는

것인지, 그 以外의 因子에 의한 것인지는 精查中이다.

#### 4. 옥수수 濃分 카사바澱粉을 使用한 半連續的 無蒸煮 에타놀 酶酵

省資源, 省에너지의 立場에서 아미라제 酵母를 循環해서 사용하고 澱粉은 加熱糊化 시키지 아니하고 에타놀 酶酵에 供하였다.

##### a. 옥수수 濃粉의 濃度檢討

反応液 50mℓ에 外 20%, 30%, 40%가 되도록 옥수수 生澱粉을 添加했다. 反応液에는 구루코아미라제 製剤(Glucuzyme GNL-2000, 2800u 天野)와 新鮮压搾酵母 0.5g을 含有하고 pH를 3.5로 調節하고 30℃에서 酶酵시킨다. 約 1日에 生成된 約 10V% 前後の 에타놀을 減圧蒸留(30~40℃)로 採取하고 새로이 消費澱粉相當量의 옥수수 濃粉를 添加, 물을 加하여 原容으로 만드는 同時に 酸으로 pH를 3.5로 調節하여 酶酵를 再開한다. 図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천히攪拌하면서 酶酵시키면, 30% 옥수수 濃粉懸濁液에서는 当初 3回쯤은 每日 11V% 前後の 에타놀이 生産되었다. 그런데 4回째부터는 酶酵速度가 떨어져 그 後에는 急速히 酶酵速度가 低下됨이 認定되었다. 澱粉濃度로서는 30%가 좋은것을 알았지만 무엇 때문에 3回以後, 酶酵速度가 急速히 低下

〈表6〉 세루라제剤 또는 페쿠치나제剤의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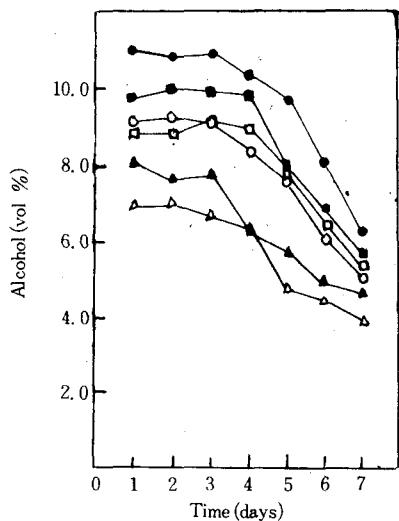
酵素의種類	구루코아미라제活性	에타놀(V%)		에타놀收率(%)
		6日目	8日目	
구루코아미라제剤* 単独	2,800	7.2	7.5	88.2
구루코아미라제剤+세루라제剤** (0.05%)	2,970	7.9	7.9	92.9
구루코아미라제剤+페쿠치나제剤*** (0.05%) (0.10%) (0.50%)	2,814 2,828 2,940	7.8 7.8 7.9	7.8 7.8 7.9	91.8 91.8 92.9
<i>Asp. niger</i> No. 20 麴	700	7.4	7.5	88.2

\* 天野 Glucuzyme GNL-2000 \*\* 阪急 Cellulosin AF-10 \*\*\* 天野 Pectinase G

되는 가의 究明에도 들어갔다.

### b. 透析 또는 곰팡이 菌体의 添加效果

以上과 같이 3~4回의 半連續醣酵로 에타놀生成速度가 急速히 떨어지는 것은 酵母에 의해 生産되는 低分子物質(有機酸, 헤겔油, 알데하이드類)에 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醣酵醪를 減压留後 水道水에 对하여 하룻밤 透析하든지 減压蒸留殘液에 黑麴菌의 振盪培養菌를 投入하여 以下 对照와 같이 处理하여 醣酵를 계속하였든 바 図8에서 보는 바와같이 約 20日間에 걸쳐 半連續的으로 옥수수 澱粉의 無蒸煮에타놀 醣酵를 계속 할 수 있었다.



〈図7〉 에타놀生産에 있어 옥수수澱粉의 濃度와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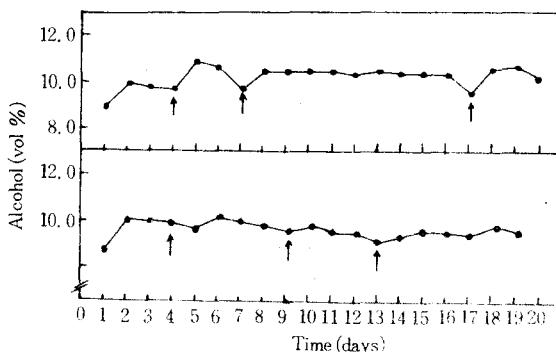
△와 ▲ 20%, ○과 ● 30%, ■와 ■ 40%  
백색표시는 静置, 흑색 표시는 振盪

### c. 静置培養酵母에 의한 醣酵

上述한 実驗은 新鮮壓搾醪酵母를 使用한 所謂通氣培養酵母에 의한 実驗이었으나 이 実驗에 있어서는 이 酵母를 静置培養하여 얻은 菌体를 半連續的 無蒸煮에타놀 醣酵에 供하였다. 静置酵母의 경우는 20回(約 20日間)에 걸친 半連續無蒸煮에타놀 醣酵기간중 불과 1回의 透析로 充分하였다.

### d. 카사바 澱粉을 使用한 無蒸煮에타놀 醣酵

이 경우에도 通氣培養酵母와 静置培養酵母와를 比較했다. 18日에 걸친 半連續에타놀 醣酵기간에 通氣培養酵母의 경우 2回의 透析을 必要로 하였으나 静置培養酵母의 경우는 1回의 透析로 充分하였다. 또 옥수수澱粉으로는 每日의 에타놀 生成이 10V% 前後인데 카사바 澱粉의 경우는 8~9 V%로 若干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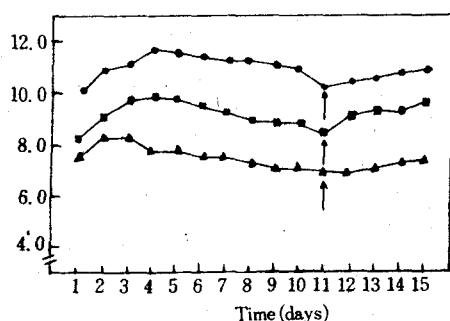
〈図8〉 半連續醣酵에 있어 醣酵醪透析 (A)와 菌添加 (B)의 影響

(A) 에타놀 生成성이 減少한 4日째 되는날 醣酵醪透析 코라겐膜에 넣어 水道水에 对하여 透析했다.

(B) *Aspergillus awamori* var. *kawachi*를 麴汁을 써서 로타리세카로 培養, 約 3g의 溫潤菌体를 4日째, 9日째, 13日째에 加했다.

### e. 카사바澱粉의 無蒸煮에타놀 醣酵에 있어 이소아미라제의 影響

細菌 *Pseudomonas* sp. 가 生産하는 澱粉가지 자르기(枝切) 酵素(이소아미라제)는 가지 자르기活性의 至適 pH가 3.0~3.5에 있으므로 黑麴아미라제를 使用한 生澱粉의 無蒸煮에타놀 醣酵에 있어 이소아미라제 添加의 影響을 調査했다. 図9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소아미라제의 添加效果는 頗著하며 카사바 澱粉으로도 10V% 以上의 에타놀이 每日 生産되었다.



(図9) 카사바澱粉의 半連續醣酵에 있어 이소아미라제의 影響

■ 아미라제(5,600单位), ▲ 아미라제(2,800单位)+이소아미라제(45,000unit)

◆ 아미라제(5,600单位)+이소아미라제(45,000单位)

↑透析処理

5, 7, 8, 9는 *J. Ferment. Technol.*, 53, 237 (1980)에서 転載 許可制

## V. 맺음말

甘蔗나 甜菜等 糖質原料를 使用한 省에너지의 에타놀 醣酵法으로 solid phase fermentation의 研究가 과테말라나 오스트리아에서 되어 쌀, 옥수수, 카사바 等의 澄粉質原料를 使用한 省에너지의 에타놀 醣酵法으로서, 無蒸煮澱粉의 solid phase fermentation의 研究가 筆者等의 研究室에서 되었기 때문에 각각 紹介하였다. 將來 많은 澄粉質原料에 의한 에타놀 醣酵法은 이 無蒸煮法으로 바뀌는 것 이 아닐까.

## 参考文献

1. 山崎何惠, 上田誠之助, 島田豊明: 21, 83 (1963)
2. 上田誠之助, 古賀偉郎: 酸協, 23, 37 (1965)
3. S. Ueda and Y. Koba: *J. Ferment. Technol.*, 58, 237 (1980)
4. S. Ueda, C. T. Zenin, D. A. Monteiro and Y. K. Park: *Biotech. Bioeng.*, 23, 291 (1981)
5. C. W. Hesseltine: *Process Biochem., July/August* 24 (1977); November 29 (1977)
6. K. D. Kirby and C. J. Mardon: Reserch and Development Workshop on "Fuel Ethanol." Feb. 4~5 Canberra, Australia (1980), Proc. IV Internat. Sympos. on Alcohol Fuels. Oct. 5~8 Guaruga, Brazil (1980)
7. C. Rolz, Sheryl de Cabrera and R. Garcia: *Biotech. Bioeng.*, 21, 2347 (1979)
8. S. Ueda: Proc. Internat. Sympos. on Enzyme Chem. Tokyo and Kyoto 491 (1957)
9. S. Ueda: Raw Starch Digestion by Mold Glucoamylase and Debranching Enzymes in "Mechanisms of Saccharide Polymerization and Depolymerization." (ed. J. J. Marshall) Academic Press (1980)
10. 熊谷知栄子, 鈴木逸郎, 黃正財, 宮入正法, 田中利雄, 秋山裕一: 日醣酵工大会講演要旨集 4 (1980)

너와나의 주인전선 나라크고 나도 큰다